



중견화가 탁순애씨 작품 수록

입력일자: 2011-01-07 (금)

뉴욕의 중견화가 탁순애씨의 작품이 미국무부의 2012년 선물용 달력에 게재된다. 이 달력은 해외 미 대사관에 배포, 대사들이 선물용으로 나눠주는 탁상 달력이다. 달력에 수록될 탁 작가의 작품은 주한미대사관에 전시된 'In Green #2'로 원과 사각형을 변주한 단순한 도형들을 돌무더기처럼 쌓아올려 '반복하는 일상'이란 인간 존재를 은유한 형태쌓기 시리즈 작품이다.

동덕여자대학을 졸업한 작가는 프랑스 리옹 미술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 7년간 프랑스에서 작업했고 1996년 뉴욕으로 이주, 형태쌓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프랑스에서 다수의 전시를 가졌고 2007년 초등학교 PS 262에 작품을 전시하는 뉴욕시 공공예술기금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달 20일까지 뉴욕 허드슨의 갤러리 135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